

노인 구강의 해부기능적 변화

서울 웰치과 이상구

neopain@hanmail.net

노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피할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병리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 흔히 잘못 알려져 있던 것으로 과거에는 치아의 상실을 정상적인 노화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구강질환에 의한 속발증으로 보아야 하며, 한 때는 타액 분비의 감소가 노화에 의한 변화로 보았으나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타액분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 등 이후에 밝혀진 사례들이 있다. 증령에 따른 구강조직의 변화와 질환과 관련된 병소를 구별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계획의 수립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증가에 따른 장기기능의 변화는 모든 장기에서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비가역적이고, 그 결과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노화현상은 생물체의 최소단위인 세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세포분열과 소멸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세포투과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회복능력이 감퇴되고 건조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피부는 얇아지고, 각질화가 감소되어 외부의 미약한 자극에서 쉽게 손상된다. 혈관계에서는 모세혈관의 분포도가 감소되어 혈액공급이 줄어들고 탄력성 감퇴와 함께 동맥경화증을 초래하게 된다. 골조직에서도 골소주의 치밀도가 감소되어 골다공증이 현저해지고 피질판이 얇아져서 파절되기 쉽다.

악구강계의 변화로는 전체적인 운동능력의 감소가 발생한다. 저작 및 연하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고 치아의 상실, 치주조직의 변화, 치아의 마모와 교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악간 고경이 감소한다. 노인의 구강에서는 젊은 환자와는 달리 치근의 치아우식증 소견을 빈번히 볼 수 있다. 구강점막은 점막에 가해지는 미세외상의 반복, 구강악습관 및 타액선 기능저하의 결과로 인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 동안 형성된 악습관 및 반복된 미세외상 등은 악관절와를 평면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로 경사는 완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인 구강생리와 노인 구강생태는 또 다른 원인과 경로를 가지고 악구강계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